



# 주간 통일정세

2012-18

##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 I. 북한동향

### 1. 대내정세

#### 가. 정치

##### ● 北 총리 주재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4/23,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최영림 내각총리를 비롯한 내각 성원이 참석한 가운데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전함.
- 회의에서는 '1분기 인민경제계획 수행정형 총화와 2분기 인민경제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2012년 국가예산을 정확히 집행할 데 대하여'를 토의함.
- 통신은 1분기 공업총생산액이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103% 늘었으며 수십 개의 위원회, 성, 중앙기관과 수천 개의 공장, 기업소가 분기 공업총생산액 계획을 수행했다고 전함.
- 2분기 중심과업에 대해서는 "모든 역량을 총집중해 봄철 영농사업을 제철에 해제함으로써 올해 농사 성과의 담보를 마련하고 인민소비품 생산에 전환을 일으키며 인민경제 4대 선행부문에서 전반적 생산을 활성화하고 올해 인민경제계획 수행의 돌파구를 열어내는 것"이라고 통신은 설명함.

##### ● 北, 최룡해 군 건설현장 시찰 이례적 보도(4/25, 조선중앙통신)

- 북한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이 24일 김형직사범대학 개건보수공사장을 현지 요해(了解. 파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전함.
- 통신은 최룡해가 건설 현장에서 "김정은 동지의 의도에 맞게 김형직사범대학 개건보수공사를 최상의 수준으로 빨리 끝내기 위한 공사에서 노력적 성과를 이룩하고 있는 군인건설자들을 고무했다"고 전함.

##### ● 北 '인민군 창건 80돌' 행사...김정은 참석(종합)(4/25,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인민군 건군일로 정한 25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건군 80돌 경축 중앙보고대회를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전함.
- 대회에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비롯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 내각총리,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등 당·정·군 고위간부들이 참석했으며 주석단에는 한때 좌천설이 나돈 김격식 전 4군단 사령관도 모습을 나타남.
- 리영호 인민군 총참모장은 중앙보고대회 보고에서 "인민군대는 제국주의자들이 떠드는 고도기술무기들을 일격에 격파 분쇄할 수 있는 위력한 현대적 무기로 (충분히) 장비되게 됐다"며 "인민군대는 그 어떤 현대전에도 능히 대처할 수 있는 우리식의 공격수단과 방어수단들을 완비한



- 천하무적의 백두산 혁명강군의 위용을 떨치고 있다"고 강조함.
- 김 1위원장은 이날 건군절 80돌을 맞아 금수산태양궁전도 참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北김정은, 건군 80돌 경축 합창공연 관람(4/26,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25일 평양의 4·25 문화회관에서 열린 인민군 창건 80돌 경축 공훈국가합창단 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공연 관람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립 내각총리, 최룡해 군총정치국장, 리영호 총참모장, 김정각 인민무력부장,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김경희, 박도춘, 김영춘, 김국태, 김기남, 최태복, 현철해 당비서, 강석주 내각 부총리,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등이 함께 함.
  - **北김정은, 무장장비관 건설 군인들과 기념사진(4/26,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조선인민군 무장장비관을 완공한 군인 건설지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전함.
    - 기념촬영에는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리영호 총참모장, 김정각 인민무력부장,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김영춘 국방위 부위원장, 김기남, 박도춘 노동당 비서, 현철해 인민무력부 1부부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리명수 인민보안부장 등이 함께함.
  - **北김정은, 군부대 '보복타격' 훈련 참관(4/28,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인민군 창건 80돌을 맞아 진행된 북한군 제655연합부대의 종합전술연습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전했다.
    - 통신은 종합전술연습이 진행된 날씨는 밝히지 않았으며, 훈련에는 비행대, 탱크와 장갑차, 포부대, 보병부대 등이 동원됐음.
    - 훈련장에서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리영호 총참모장, 김정각 인민무력부장, 현철해 인민무력부 1부부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리명수 인민보안부장 등 북한군 고위간부들이 김 1위원장을 영접했으며, 장성택, 김영춘 국방위 부위원장, 김경희, 김기남 노동당 비서 등 당·정·군의 고위간부가 김 1위원장과 함께 훈련을 참관했음.
  - **김정은, 건군 80돌 경축 은하수음악회 관람(4/28,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평양 인민극장에서 열린 인민군 창건 80돌 경축 은하수음악회 '잊지 말자 혁명에 다진 그 맹세를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
    - 공연을 관람한 김 1위원장은 "은하수관현악단은 장군님(김정일)께서 손때 묻혀 키우신 예술단체"라며 "역시 은하수"라고 치하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 공연 관람에는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리영호 총참모장, 김경희 당 비



서, 김정각 인민무력부장, 장성택, 김영춘 국방위 부위원장, 김기남, 박도춘 당 비서, 현철해 인민무력부 1부부장, 김양진 통일전선부장, 김경옥 당 조직부 1부부장, 김명국 총참모부 작전국장 등이 함께했음.

- <북한단신> 인민군 창건 80돌 경축 연회(4/28, 조선중앙통신)
  - 북한 인민군 창건 80돌 경축 연회가 27일 저녁 평양 목란관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
  - 연회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 내각총리 등 당·정·군 간부들이 참석했으며, 연회에서는 왕재산예술단 공연이 있었음.



■ 김정은 동향

- 4/23, 김정은 黨 제1비서, 4.23 중국 후진타오 주석 축전에 답전 (4.23,중통·중방)
- 4/25,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 4.25 인민군 창건(4.25) 80돌 경축 중앙보고대회(4.25문화회관) 참석(4.25,중·평방·중통·중앙 TV)
  - 김영남, 최영림, 최룡해, 리영호(보고), 김경희, 김정각, 장성택, 박도춘, 김영춘, 김국태, 김기남(사회), 최태복, 양형섭, 강석주, 현철해, 김원홍, 리명수, 오극렬, 김양건, 김영일, 김평해, 문경덕, 곽범기, 주규창, 김창섭, 로두철, 리병삼, 조연준, 김영대 등
- 4/25, 김정은, 4.25 금수산태양궁전 김일성·김정일에게 경의 표시 (4.25,중·평방·중통)
  - 김영남, 최영림, 최룡해, 리영호, 김경희, 김정각, 장성택, 김영춘, 김국태, 김기남, 최태복, 박도춘, 양형섭, 강석주, 현철해, 김원홍, 리명수, 김양건, 김영일, 김평해, 문경덕, 주규창, 곽범기, 김창섭, 리병삼, 로두철, 조연준 등 참가
- 4/25, 김정은, 4.25 공훈국가합창단 공연(4.25문화회관) 관람(4.25,중통·중·평방)
  - 김영남, 최영림, 최룡해, 리영호, 김경희, 김정각, 장성택, 박도춘, 김영춘, 김국태, 김기남, 최태복, 양형섭, 강석주, 현철해, 김원홍, 오극렬, 리명수, 김양건, 김평해, 문경덕, 곽범기, 주규창, 김창섭, 로두철, 리병삼, 조연준, 김영대 등 동행 관람
- 4/26, 김정은, 4.25 새로 건설된 만수교고기상점(평양 보통강변) 준공식 참석(4.26,중통·중방)
  - 김영남, 최영림, 최룡해, 리영호, 김경희, 김정각, 장성택, 박도춘, 김영춘, 김기남, 최태복, 양형섭, 강석주, 현철해, 김원홍, 리명수, 김양건, 김평해, 문경덕, 곽범기, 주규창, 김창섭 등 참여
- 4/26, 김정은 黨 제1비서, 무장장비관 건설에서 위훈을 세운 군인건설자들과 기념사진(4.26,중통·중방)
  - 최룡해, 리영호, 김정각, 장성택, 김영춘, 김기남, 박도춘, 현철해, 김원홍, 리명수, 주규창, 김창섭, 리병삼, 최부일, 손철주, 박재경, 김영철, 조경철, 윤동현, 김수학, 리재일 참가
- 4/28, 김정은 제1위원장, 제655연합부대 종합전술연습 지도(4.28,중통·중방)
  - 최룡해, 리영호, 김정각, 최부일, 현철해, 김원홍, 리명수, 박재경, 리병철, 김영철, 윤정린, 조경철, 박정천, 손철주, 김경희, 장성택, 김영춘, 김기남, 양형섭, 박도춘, 강석주, 김영일, 김양건, 김평해, 문경덕, 김창섭, 리병삼, 곽범기, 오일정, 김경욱, 리재일, 한광상, 김명국 등 참관
- 4/28, 김정은, 인민극장에서 軍 창건 80돌 경축 은하수음악회 관람 (4.28,중통·중방)
  - 최룡해, 리영호, 김경희, 김정각, 장성택, 김영춘, 김기남, 박도춘, 현철해, 김양건, 김경욱, 김명국 등 관람





- 4/29, 김정은 제1비서, 조선인민군 제26차 군사과학기술전람회장 참관(4.29,중통·중·평방)
  - 최룡해, 리영호, 김정각, 장성택, 김영춘, 현철해, 손철주, 박재경, 김영철, 리재일, 김명국, 윤동현, 전창복, 박정천 동행
- 4/29, 김정은 제1비서, 평양시민들과 함께 조선인민군교예단 대형요술공연 관람(4.29,중통·중·평방)
  - 최룡해, 리영호, 김정각, 장성택, 김영춘, 현철해, 최부일, 김영철 등 함께 관람

- 기타 (대내 정치)
  - '김정은 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자주·선군·사회주의의 길로 역세계 전진하며 주체혁명의 새 승리를 이룩해 나갈 것'을 호소(4.23,중통·노동신문·중방/김정은 동지의 영도따라 주체혁명의 위대한 새 승리를 향하여 역세계 전진하자)
  - 對南 규탄 시(구역)·군 군민대회, 각각 개최(4.28,중통·중방)
  -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 육성 연설(4.15, 열병식)을 "세계 12,000여 개 출판 보도물들 보도, 5대륙 수억명이 시청했다"며 中 인민일보 등 내용 소개(장엄한 출발 선언 등) 선전(4.28,중방/조선에서 김정은 시대가 닦을 올렸다)

나. 경제

- 北, 하얼빈~금강산 관광 잠정중단 인했다(4/23,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김일성 주석100회 생일(4월15일·태양절) 기간에 하얼빈~금강산 국제관광을 실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전함.
  - 통신은 "지난 13일부터 3박 4일간 일정으로 전세기에 의한 하얼빈~금강산 국제관광이 있었다"며 "해금강과 구룡폭포, 만물상 등지의 산천경관을 부감(높은 곳에서 내려다봄)하며 관광객들은 그 신비로운 세계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전함.
- 농업성, 비료 20만t 해외구매 지시(4/25, 좋은벗들)
  - 북한 농업성이 무역성 일꾼에게 비료 20만t을 구입하라고 지시했다고 대북인권단체 (사)좋은벗들이 25일 전함.
  - 이 단체가 운영하는 북한연구소의 소식지 '오늘의 북한소식'(452호)은 이 지시에 따라 무역성 일꾼 10여 명이 비료를 포함한 농자재 구입을 위해 해외에 파견됐지만 중국산 비료 구매가 사실상 불가능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힘.
  - 중국은 올해 1월부터 비료 수출을 제한하려는 목적으로 비료수요 기간에 특별관세율을 부과해 화학비료와 염화암모늄 등 각종 비료제품은 1~5월과 10~12월에 75%의 특별수출세를 부과하고 있어 이 때문에 무



역성 일꾼들은 러시아산 비료 구매방안을 알아보고 있지만 비료 구입에  
만 약 1억 달러 이상 드는 것으로 파악돼 이마저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 소식지는 전함.

● **北, 중국인 북한 단체관광 재개(4/27,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김일성 주석 생일(4월15일·태양절) 전후로 중단한 중국인의 북  
한 단체관광을 25일 재개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중국내  
여행사를 인용해 27일 전함.

다. 군사

● **중기업, 작년 北미사일 차량 판매 '자랑'(4/24, 연합뉴스)**

- 북한에 미사일 운반 차량의 차대를 판매한 것으로 미국 당국이 추정하  
는 중국 기업이 지난해 자체 웹사이트에 언론발표문을 통해 그같은 판  
매사실을 자랑한 것으로 보인다. 유엔 외교관들이 24일(현지시간) 밝  
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미 정보 당국은 '후베이 썬장 스페이스 왕산 스페셜 비히클(湖北三江航  
天萬山特種車輛有限公司·이하 후베이썬장)'이라는 중국 기업이 북한  
에 완성차가 아닌 차대를 판매했고 그것도 민수용으로 여겼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한 미국 관리가 말했으며 이 관리는 이 중국 기업이 구매자  
의 실체를 은폐할 의도로 나선 '간판 회사'에 차대를 판매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함.

● **北, 평양서 인민군 건군 80돌 경축 보고대회(4/25, 조선중앙통신)**

- 북한 인민군 건군 80돌 경축 중앙보고대회가 25일 평양 4·25문화회관  
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통신은 "김일성 동지께서 조선인민군을 창건하신 80돌이 되는 날을 경  
축하는 중앙보고대회가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성대히 진행됐다"고  
밝힘.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중앙보고대회에 참석함.

● **中, 작년 5월 북한에 발사대 차량 8대 수출(4/27, 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 15일 열병식에서 선보인 신형 이동식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발사대 차량은 지난해 중국에서 수입한 것이라고 캐나다에 본부를 둔  
중국 전문 민간 군사연구기관 '칸와(漢和) 정보센터'가 26일(현지시간)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밝힘.
- 통신에 따르면 칸와 정보센터는 이날 북한의 신형 미사일 발사대 차량  
과 관련, 중국기업이 작년 5월 8대를 수출했으며 발표칸와 정보센터는  
그간 중국산일 가능성이 제기된 발사대 차량을 조사한 결과 중국이 수  
출한 것에 미국제 디젤엔진과 독일제 변속기를 단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함.



## 라. 사회·문화

- **중국방문 北주민 급증…전년比 40% ↑ (4/24, 미국의소리(VOA))**
  - 중국을 방문하는 북한 주민이 급증하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4일 전함.
  - 중국 관광정책 담당부처인 국가여유국이 23일 공개한 '1분기 외국인 입국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중국을 방문한 북한 주민은 4만2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만8천600명보다 40.5%나 늘어났음.
  - 올해 1분기 방중한 북한 주민 중 공장이나 식당 등에서 일하려고 방문한 사람이 1만9천300명(48%)으로 가장 많았고, 회의 참석이나 비즈니스 용무 1만800명(27%), 관광 1천100명 등 순으로 집계되었으며 연령별로는 45~64세가 1만9천100명으로 가장 많고, 25~44세 1만7천200명으로 낮고, 성별로는 남성이 3만3천200명(83%), 여성은 7천명이었음.
- **北 10대 인구 2050년에 지금보다 24% ↓ <유니세프>(4/26, 미국의소리(VOA))**
  - 북한의 10대 청소년 인구가 2050년에는 현재보다 24% 감소할 것으로 유엔아동기금(UNICEF)이 전망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6일 전함.
  - 유니세프는 25일 내놓은 '어린이 발전 백서'(Progress for Children)에서 2010년 북한의 10~19세의 청소년 인구를 4백12만3천명으로 추산하고 2050년에는 이보다 24% 감소한 3백11만6천명이 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에 따라 전체 북한인구 중 10대 청소년 비율도 2010년 17%에서 2050년에는 12%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봄.
- **평양 고기상점 준공식에 北지도부 총출동(4/26,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25일 평양 만수교 고기상점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연건축면적 5천여㎡의 만수교 고기상점 1층에는 생선매장이, 2층에는 육류 및 가공품 판매매장, 3층에는 불고기식당이 들어섰는데 김 1위원장은 지난 1월과 3월 상점 건설장을 찾아 주민들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건설하라고 지시한 바 있음.
  - 준공식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 내각총리, 최룡해 군총정치국장, 리영호 총참모장, 김정각 인민무력부장,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김경희, 박도춘, 김영춘, 김국태, 김기남, 최태복, 현철해 당 비서, 강석주 내각 부총리,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등도 참석함.
- **北, 일본인 납치피해자 강제 이주(4/29, 산케이신문)**
  - 북한이 일본인 납치피해자를 강제 이주시키는 등 비밀 유지를 위해 엄중히 관리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29일 보도





- 이 신문은 일본의 시민단체인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한 전국협의회(구하는 모임)'가 북한의 유력한 당국자로부터 이런 정보를 입수했다고 전했으며, 북한은 2007년과 2008년 일본인 피랍자의 정보를 입수하려 시도한 인물을 체포한 뒤 비밀경찰인 국가안전보위부가 피랍자에게 접근하는 사람은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처벌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함.
  - 또 일본인 피랍자를 엄중한 관리하에 두기 위해 강제 이주시킨 것으로 전해졌음.
- UNHCR 대표 "中 탈북자 복송 중단 인했다"(4/29,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요미우리신문)
- 중국이 최근 탈북자 강제복송을 중단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해 유엔 난민최고대표사무실(UNHCR)의 안토니오 구테레스 최고대표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9일 보도
  - RFA는 미국 의회 소식통을 인용, 구테레스 최고대표가 지난 27일 오전 미 의회 관계자들에게 중국내 탈북자 문제에 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18일 중국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광명성 3호 위성' 발사와 관련해 북한으로부터 사전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탈북자 강제복송을 중단했다고 보도한 바 있음.

## 2. 대외정세

### 가. 일반

- 백악관 "北 추가도발 배제 못해"(종합)(4/24, 연합뉴스)
- 미국 백악관은 23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남 특별행동' 위협과 관련,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24일 전함.
  - 제이 카니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정권은 분명히 도발적인 행동으로 알려져 있고, 연속적으로(in a series) 도발을 해왔다"면서 "따라서 도발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함.
  - 카니 대변인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는 특별히 대응할 게 없다"면서 "다만 북한 정권의 행동은 국제사회의 규탄을 초래했고, 영양지원을 진전시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비판함.
- 중국, 북한에 도발행위 자제 촉구(4/24, 교도통신)
- 중국 정부는 24일 북한이 '대남 특별행동'을 개시하겠다고 위협한 데 대해 자제를 촉구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함.
  - 통신에 따르면 류웨이민(劉爲民)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베이징에



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한반도 정세의 안정을 해치지 말기를 관련 당사국에 촉구한다"고 강조해 북한에 추가 도발에 나서지 말 것을 당부함.

- 류 대변인은 "최근 한반도 정세의 발전에 강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혀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며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의 동향에 경계감을 나타냄.

● **美에 우호적인 中.. 새로운 협력시대 도래?(4/28, 연합뉴스)**

- 최근 중국이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을 둘러싼 국제안보 문제에서 미국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28일 전함.
- 하지만 이는 때마침 일부 중요한 사안에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데 따른 것일 뿐 양국간에 새로운 화해의 시대를 알리는 전조로 보기에는 이르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27일(현지시간) 보도
- 중국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로켓 발사를 강행하자 이를 강하게 규탄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성명에 순순히 찬성했으며, 안보리의 시리아 결의안에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휴전 감시단을 파견기로 하는 결의안에도 제동을 걸지 않았음.
- 앞서 2월에는 이란산 원유 수입을 대폭 줄였고 이란이 1년 만에 핵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는데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음.
-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양국 관계에 대한 선부른 낙관론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음.

■ **기타 (대외 일반)**

- 北 외무성 대변인 담화(4.23) 장거리 로켓 발사 관련 '미국의 이중 기준 적용은 대북적대시정책의 산물이며, 이런 적대시정책을 국제화하는데 유엔을 악용하고 있다'고 비난(4.23, 중통·중방)
- 김영일(黨 비서), 4.23 후진타오 中 공산당 총서기 예방(4.24, 중통)
  - 후진타오, 김정은을 수반으로 하는 노동당과 강성국가 건설 성과에 지지 표시 및 '최근시기 정세가 복잡하지만 중조천선은 계속 공고발전되고 있다'고 언급
  - 김영일, 4.22 리위엔차오 中 공산당 조직부장과도 담화 및 4.24 귀국(4.24, 중통)
- 日 '2012년 외교청서'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려는 범죄적 기도의 산물"이라고 비난(4.25, 중통·노동신문·중방/집요한 영토강탈 야망)
- '미국이 핵무기 없는 세계를 주도하기라도 할 것처럼 너스레를 떨고 있다'며 '인류에게 핵참화를 들썩운 핵범인, 지구상에 핵군비경쟁을 몰아온 최대의 장본인'이라고 비난(4.29, 중통·노동신문·중방/미국은 세계최대의 핵 범죄국가)



나. 6자회담(북핵)

● **北 김영일, 핵개발 계속하겠다(4/24, 교도통신)**

- 북한 노동당 비서 김영일은 앞으로도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겠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24일 보도함.
- 통신에 따르면 당국제부장인 김영일은 이달 중순 방북한 일본의 안토니오 이노키 전 참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힘.
- 프로레슬러 출신인 이노키 전 참의원은 인터뷰에서 김영일이 "미국이 핵개발을 중단하면 지원하겠다고 말하지만 핵을 포기한 나라는 짓밟혔다. 그 전철을 밟진 않겠다"고 강조했다고 전함.

● **반 총장 "北, 추가도발·핵실험 삼가야"(4/27, 연합뉴스)**

- 인도를 방문 중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27일(현지시간)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소식과 관련, 북한에 자제를 촉구했다고 연합뉴스가 27일 전함.
- 반 총장은 이날 뉴델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이 이달 중순에 실시한 로켓 발사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북한은 "추가 도발이나 핵실험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음.
- 반 총장은 이어 북한이 "역내 평화 유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만 한다"고 밝혔음.

● **한미 "北핵위협 시나리오 공동 연구개발"(4/28, 연합뉴스)**

- 한·미 양국은 최근 북한의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핵위협 시나리오'를 공동 연구·개발기로 합의했다고 연합뉴스가 28일 전함.
- 또 양국간 국방 우주협력 합의서 체결과 우주분야 연합연습, 사이버 협의채널 강화 등을 통해 국방 동맹의 범위를 사실상 전방위로 확대키로 했으며, 한·미 양국은 27일(현지시간) 미국 펜타곤(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1차 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방협력 방안을 마련했다고 국방부가 밝혔음.
- 양국 국방당국은 이번 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강행과 3차 핵실험 가능성 등과 관련, 핵위협 시나리오를 공동으로 개발해 올해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논의기로 합의했음.
- TTX는 북한이 핵무기로 남한을 위협하는 위기상황에 정치·군사적으로 대응하는 연습으로, 지난해 11월 미 전략사령부에서 처음으로 실시됐음.

● **국방부 "北핵실험 정황있으나 정보없다"(4/28, 연합뉴스)**

- 임관빈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27일(현지시간)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우려와 관련,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한·미 양국의 판단"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28일 전함.



- 제1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D)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임 실장은 이날 특파원단을 대상으로 한 회견에서 이같이 전했다.
- 그러나 '구체적인 정보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면서 "언제가 될지 구체적으로 예단할 수 없지만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 그러면서 북한이 과거 두차례의 핵실험을 미사일발사와 연계했던 전례가 있는데다 최근 장거리로켓 발사 실패를 만회해 김정은 체제의 각인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정황' 근거로 제시

#### ● 北 우라늄 이용한 3차 핵실험 가능성(4/28, 연합뉴스)

- 3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이 이번에는 플루토늄이 아닌 우라늄을 이용한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이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28일 전함.
- 하이노넨 전 차장은 27일 로이터 통신을 통해 공개한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하면서 "북한이 이렇게 한다면 고농축우라늄(HEU) 생산 기술을 개발해 핵무기 생산에 충분한 정도의 핵물질을 비축한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 2010년까지 IAEA에 몸담았던 하이노넨 전 차장은 북한이 2010년말 미국 전문가들에게 보여준 우라늄 농축시설은 HEU의 생산을 위해 손쉽게 개량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 美 위성사진, 北 핵실험 준비 장소 포착(4/28, 연합뉴스)

- 북한의 과거 핵실험 장소인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핵실험용 갱도 굴착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탄광차 행렬과 여타 작업들이 위성사진에 포착됐다고 28일 연합뉴스가 전함.
- 이 사진에는 그러나 북한이 언제 핵실험을 실시할 지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국제대학원의 한미연 연구소가 27일 AP통신에 제공한 상업용 위성 촬영 사진에는 풍계리 현장의 이 같은 모습이 담겨있음.
- 3월 8일부터 4월 18일 사이에 촬영된 이 사진들을 분석한 결과 현장에서는 8천㎡의 토사가 굴착된 것으로 추정됐음.
- 이 연구소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 노스'(38 North) 편집자인 조엘 위트는 "이 사진들을 보면 북한이 지난 몇 달 동안 핵실험 준비를 해왔음이 분명하지만 언제 실험을 단행할 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 풍계리는 북한이 2006년과 2009년에 각각 핵실험을 실시한 곳으로 이번에 촬영된 사진들은 지난 3월부터 이곳에서 다양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분석가들은 밝혔다.



### 3. 대남정세

- 北 "조선반도에 무슨일 터지면 이명박 책임"(4/23, 조선중앙통신; 우리민족끼리)

  - 북한 외무성은 22일 밤 대변인 성명에서 "조선반도에서 무슨 일이 터지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이명박 역도에게 있다는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외무성 대변인은 "이명박 역도는 수령님(김일성) 탄생 100돌 경축행사에 돈이 얼마 들었대느니, 그 돈이면 식량을 얼마 사올 수 있다느니 하는 악의에 찬 돈벌레 타령을 해냄으로써 우리 인민의 숭엄한 사상감정에 마구 칼질을 하는 특대형 도발행위를 저질렀다"며 이같이 밝힘.
  - 같은 날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난 20일 특강내용을 비난하는 논평을 통해 "특별강연이란 데서 북의 '농지개혁 단행 촉구'라는 궤변까지 늘어놓고 있다"며 "우리의 체제와 존엄을 흔들어보고 천년 가도 실현될 수 없는 체제붕괴의 틈을 마련해보려는 것"이라고 비난함.
  
- 北 "대남무력 특별행동 곧 개시" 위협(종합)(4/23,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23일 남측에 "혁명무력의 특별행동이 곧 개시된다"고 사실상 대남도발을 예고했는데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특별작전행동소조는 이날 통고를 통해 "이명박 쥐XX무리들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분노는 하늘에 닿았다"며 "역적패당의 분별없는 도전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우리 혁명무력의 특별행동이 곧 개시된다"고 밝힘.
  - 인민군은 "우리 혁명무력의 특별행동은 일단 개시되면 3~4분, 아니 그보다 더 짧은 순간에 지금까지 있어본 적이 없는 특이한 수단과 우리 식의 방법으로 모든 쥐새끼무리들과 도발 근원들을 불이 번쩍나게 초토화해버리게 될 것"이라고 위협함.
  - 인민군은 "특별행동은 노호한 민심과 분노의 폭발이며 우리의 최고존엄을 사수하기 위한 천만군민의 성전"이라며 "특별행동의 대상은 주범인 이명박 역적패당이며 공정한 여론의 대들보를 쏘고 있는 보수언론매체들을 포함한 쥐새끼무리들"이라고 밝힘.
  - 인민군은 이명박 대통령의 20일 통일교육원 특강내용, 19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의 발언 등을 겨냥해 "현실은 역적패당의 도발광기가 이미 분별을 잃은 지 오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함.
  
- 北매체들도 일제히 '대남 보복戰' 위협(4/23, 연합뉴스; 노동신문; 평양방송; 조선중앙통신)

  -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부가 23일 '혁명무력 특별행동 곧 개시'라고 대남도발을 예고한 뒤 북한 매체들도 대남비난과 위협의 수위를 일제히 높였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개인필명의 논설을 통해 "공화국의 체제를 부정하면서 대결 야망을 실현해 보려고 발악하는 이명박 역적패당은 중국적인 파멸을 면할 수 없다"며 "우리 군대는 우리식 성전으로 역적패당을 죽탕쳐버리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이제 남은 것은 실천뿐"이라고 밝힘.
  - 대외용 라디오방송인 평양방송은 '단호히 박살 낼 때가 되었다'는 제목의 논설에서 "역적패당이 '태양절(김일성 생일)' 경축행사를 걸고 들어 잔치비용이요 뭐요 하는 허튼 수작질로 우리 최고존엄, 우리 체제, 우리 군대와 인민을 또다시 중상 모독했으니 도발이면 이보다 더한 도발이 어디에 있겠는가"라며 우리 정부를 비난함.
  - 조선중앙통신도 논평을 내고 "동아일보를 비롯한 악질적인 보수언론들도 우리의 존엄 높은 영상모습을 날조하는 무도한 짓을 서슴지 않았다"며 "우리의 보복은 특대형 도발자들에 대해 그가 누구이든, 어디에 있는 무자비한 복수의 세례를 안기고 그 모든 것을 통째로 날려보내는 가장 위력한 타격전으로 될 것"이라고 위협함.
- **北조평통 "우리 최고존엄·체제 모독맨 표적"(4/27, 조선중앙통신)**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7일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중상 모독하는 자들은 이명박 쥐XX와 똑같이 우리 선군 총대의 표적이 돼 가장 비참한 운명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이날 조평통 서기국은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의 발언을 겨냥, 보도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우리 군대와 인민은 신성한 우리의 최고존엄과 체제를 모독하는 데 대해서는 두목 쥐XX든 줄개 쥐XX든 다 때려잡아 치울 것"이라고 위협했음.
  - **北 '은하3호' 발사 최초 탐지 해군 부사관 특진(종합)(4/27, 연합뉴스)**
    -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 로켓(미사일) '은하3호'를 최초로 탐지한 해군 부사관이 1계급 특진에 훈장까지 받았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해군은 충무공 탄신 467주년을 하루 앞둔 27일 경남 창원시 진해군항에 정박한 세종대왕함에서 최윤희 해군 참모총장 주관으로 '북한 장거리 미사일 대응 유공자 포상 및 특진 신고식'을 열었음.
    - 특진에다 훈장까지 받은 허 상사는 세종대왕함 사격통제 부사관으로 지난 13일 북한의 은하3호를 발사 45초만에 탐지해 냈으며 1997년 해군 부사관 171기로 임관한 허 상사는 2007년 우리 해군의 첫 이지스구축함인 세종함 인수요원으로 선발된 뒤 최첨단 이지스체계의 핵심인 스파이레이더 운용요원으로서 5년간 근무하고 있음.
  - **李대통령 "5월 월급 '통일항아리' 넣겠다"(종합)(4/28, 연합뉴스)**
    -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통일 재원 마련을 위해 통일부가 마련한 '통일항아리' 기금에 다음달 월급을 전액 기부하겠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김성환 외교 통상 장관이 통일 기금의 필요성을 거론하자 "5월 월급을 통일 항아리에 넣겠다"고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 그러자 류우익 통일 장관은 "그것(이 대통령의 기부)을 통일 항아리 1호로 해야겠다"고 말했다고 전함.
- 통일 항아리는 옛 서독이 통독에 대비해 '연대기금'(Solidarity Fund)을 조성한 것처럼 남북통일 비용을 미리 마련하지는 취지에서 통일부가 기획한 기금이지만, 18대 국회에서 관련법이 처리되지 않아 모금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음.

#### ■ 기타 (대남)

- [北 최고사령부 특별작전행동소조 통고(4.23)] '최고존엄을 사수하기 위한 천만 군민의 성전으로 혁명무력의 특별행동이 곧 개시된다'며 '특이한 수단과 방법으로 도발근원들(이○○정부와 보수언론매체들)을 초토화해 버리게 될 것'이라고 극렬 위협(4.23, 중통·중·평방·우리민족·조선신보/역적패당의 위협수위에 이른 도발광기를 더는 용납할 수 없다)
- 【중앙통신사 논평(4.24)】 이대통령의 김일성 생일 행사비용 거론을 '北 최고존엄·체제·인민에 대한 특대형 도발행위'라고 연일 비난(4.24, 중통/부덕쥐 무리는 인간세상을 알 수 없다)
- '北 특별행동 통고는 국면전환용, 대남심리전' 주장에 대해 "우리 혁명무력은 절대로 빈말을 하지 않는다"며 "연평도포격사태와 같은 수준의 경고로 그치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에 불과하다"고 주장(4.26, 우리민족끼리/아직도 우리의 보복의지를 모르겠는가)
- '최고존엄모독' 관련 대통령의 '통일교육원'(4.20), '국방과학연구소'(4.19)에서의 대북발언을 두고 '천만군민의 멸적의 과녁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속 위협(4.26, 평방/달갈로 바위를 치는 격의 어리석은 망동)
-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발언(4.23, 北 세습체제 등)을 "최고존엄에 대한 가장 악랄한 모독행위"라고 비난 및 "천백배의 보복성전이 이 땅에서 개시되었다"고 위협(4.28, 중통)
- 국가재정전략회의(4.28, 청와대)에서 '통일항아리'에 대통령의 5월 월급 기부 관련 '대결정책에 대한 지지여론을 항아리에 채워보려는 치졸한 속심'이라고 비난(4.29, 우리민족끼리/통일항아리에 채워질 것은?)



## II. 동북아정세

### 1. 대북한 관련

####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 "北 우라늄 이용한 3차 핵실험 가능성"(4/28)

- 3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이 이번에는 플루토늄이 아닌 우라늄을 이용한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이 밝혔다.
- 하이노넨 전 차장은 27일 로이터 통신을 통해 공개한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하면서 "북한이 이렇게 한다면 고농축우라늄(HEU) 생산 기술을 개발해 핵무기 생산에 충분한 정도의 핵물질을 비축한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0년까지 IAEA에 몸담았던 하이노넨 전 차장은 북한이 2010년 말 미국 전문가들에게 보여준 우라늄 농축시설은 HEU의 생산을 위해 손쉽게 개량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그는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성공적으로 건설했다면 적어도 3.5t의 저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며, 1천개의 원심분리기로 매년 생산되는 1.8t 저농축 우라늄을 40kg의 HEU로 농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이노넨은 "이 정도의 HEU로 매년 1~2개의 핵무기를 추가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 ● 美 위성사진, 北 핵실험 준비 장소 포착(4/28)

- 북한의 과거 핵실험 장소인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핵실험용 갯도 굴착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탄광차 행렬과 여타 작업들이 위성사진에 포착됐음. 이 사진에는 그러나 북한이 언제 핵실험을 실시할 지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는 드러나 있지 않음.
-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국제대학원의 한미연구소가 27일 AP통신에 제공한 상업용 위성 촬영 사진에는 풍계리 현장의 이 같은 모습이 담겨있음. 3월 8일부터 4월 18일 사이에 촬영된 이 사진들을 분석한 결과 현장에서는 8천㎡의 토사가 굴착된 것으로 추정됐음. 이 연구소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 노스'(38 North) 편집자인 조엘 위트는 "이 사진들을 보면 북한이 지난 몇 달 동안 핵실험 준비를 해왔음이 분명하지만 언제 실험을 단행할 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 풍계리는 북한이 2006년과 2009년에 각각 핵실험을 실시한 곳으로 이번에 촬영된 사진들은 지난 3월부터 이곳에서 다양한 작업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가들은 밝혔다. 최근에 촬영된 이곳 탄광차 행렬은 핵실험 장소에서 굴착된 토사들을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분석가들은 핵실험 장치들이 이미 밀봉된 갯도 내 폭발 장소에 설치돼



있는지는 분명치 않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나 파헤쳐 쌓아놓은 토사 더미의 크기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 나. 미·북 관계

### ● 백악관 "北 추가도발 배제 못해"(종합)(4/24)

- 미국 백악관은 23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남 특별행동' 위협과 관련,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제이 카니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정권은 분명히 도발적인 행동으로 알려져 있고, 연속적으로 (in a series) 도발을 해왔다"면서 "따라서 도발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카니 대변인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는 특별히 대응할 게 없다"면서 "다만 북한 정권의 행동은 국제사회의 규탄을 초래했고, 영양지원을 진전시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분명한 것은 도발적인 행동은 주민들을 먹여 살리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 오히려 정반대"라면서 "아울러 경제성장이나 국제사회 고립완화와도 관계가 없고 역시 정반대"라고 거듭 강조했다.
- 그는 또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 하면서 국제사회로 들어온다면 북한으로 향하는 문은 열려있다"면서 "그들이 이런 조치를 취한다면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와 관련,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새 지도부는 에너지를 잘못된 곳에 투입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눌런드 대변인은 "힐러리 클린턴 장관이 앞서 지적했듯 북한은 위협과 (로켓) 발사 등을 통해 고립과 압박이 심화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면서 "북한의 새 지도부는 체제를 개방하고, 주민들이 잘 먹고 존엄성을 갖고 살 수 있는 21세기의 현대사회로 움직이는 데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그는 북한의 잇따른 위협에 대해서는 "로켓 발사 전후로 밝힌 우리 입장과 달라진 게 없다"면서 개의치 않는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에 앞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특별작전행동소조는 이날 통고를 통해 "역적패당의 분별없는 도전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우리 혁명무력의 특별행동이 곧 개시된다"고 위협했다.
- 한편 카니 대변인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한 중국의 북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 지원 의혹에 대해 "북한 문제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논의의 일환으로 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미국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프로그램 및 핵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한 제재 이행을 위해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계속 공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눌런드 대변인도 지난 21일 브리핑에서 "미사일개발 지원 의혹을 비롯한 전반적인 이슈에 대해 중국 정부와 계속 대화를 하고 있다"고 확인한 바 있어 다음달 3~4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제4차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양국이 어떤 결론을 도출할지 주목된다.





### ● 미국방, 北에 도발행위 중단 거듭 촉구(4/25)

- 리언 페네타 미국 국방장관이 북한에 대해 도발행위 중단을 거듭 촉구했음. 25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페네타 장관은 전날 브라질 질리아에서 셀소 아모링 브라질 국방장관과의 회담을 마치고 나서 북한의 3차 핵실험 의도를 겨냥, "불안정성을 높이는 도발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페네타 장관은 "현 시점에서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정보를 갖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북한이 더는 도발행위를 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음. 페네타 장관은 핵실험을 포함한 북한의 도발행위가 한반도에 더 큰 불안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브라질 언론은 외신을 인용해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면서 "북한의 핵실험은 지난 13일의 '실패한' 장거리 로켓 발사보다 국제사회로부터 더 많은 비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음.
- 한편 전날 국방장관 회담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의 지난 9일 워싱턴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이루어졌음. 페네타 장관은 지난 23일부터 콜롬비아, 브라질, 칠레 등 남미 3개국 순방에 나섰다. 올해 하반기에는 또다시 남미 순방에 나서 우루과이 등을 방문할 예정임.

### 다. 중·북 관계

#### ● 北, 하얼빈~금강산 관광 잠정중단 안했다(4/23)

- 북한이 김일성 주석100회 생일(4월15일·태양절) 기간에 하얼빈~금강산 국제관광을 실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전했다. 이달 1일 북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은 4월에 금강산을 찾는 모든 관광객을 환영하며 그들이 관광을 즐기도록 성의와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통신은 "지난 13일부터 3박 4일간 일정으로 전세기에 의한 하얼빈~금강산 국제관광이 있었다"며 "해금강과 구룡폭포, 만물상 등지의 산천경관을 부감(높은 곳에서 내려다봄)하며 관광객들은 그 신비로운 세계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전했다.
- 이달 초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이 지난 달 말 김 주석 생일을 전후로 한 중국인의 평양 단체관광과 금강산 유람선 관광을 잠정 중단시켰다고 보도했었음.

#### ● 중국, 북한에 도발행위 자제 촉구(4/24)

- 중국 정부는 24일 북한이 '대남 특별행동'을 개시하겠다고 위협한 데 대해 자제를 촉구했음. 교도통신에 따르면 류웨이민(劉爲民)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한반도 정세의 안정을 해치지 말기를 관련 당사국에 촉구한다"고 강조해 북한에 추가 도발에 나서지 말 것을 당부했음.
- 류 대변인은 "최근 한반도 정세의 발전에 강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혀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며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의 동향에 경계감을 나타냈음. 또 류 대변인은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남북한의 공동 이익"이라면서 냉정과 자세를 잃지 말라고 말했다.

- 북한은 전날 남측에 "혁명무력의 특별행동이 곧 개시된다"고 사실상 대남도발을 예고했음.

#### ● "중기업, 작년 北미사일 차량 판매 '자랑'(4/24)

- 북한에 미사일 운반 차량의 차대를 판매한 것으로 미국 당국이 추정하는 중국 기업이 지난해 자체 웹사이트에 언론발표문을 통해 그같은 판매 사실을 자랑한 것으로 보인다고 유엔 외교관들이 24일(현지시간) 밝혔음.
- 미 정보 당국은 '후베이 썬장 스페이스 왕산 스페셜 비히클(湖北三江航天萬山特種車輛有限公司·이하 후베이썬장)'이라는 중국 기업이 북한에 완성차가 아닌 차대를 판매했고 그것도 민수용으로 여겼을 것으로 생각한다 고 한 미국 관리가 말했다. 이 관리는 이 중국 기업이 구매자의 실체를 은폐할 의도로 나선 '간판 회사'에 차대를 판매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 특히 후베이썬장이 지난해 자체 웹사이트에 게시된 언론발표문은 구매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문제의 차대 판매를 자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유엔의 서방 소식통들이 밝혔다. 영어로 된 이 언론발표문은 2011년 5월 7일 "중국 최대의 자동추진과적특수무한궤도차량의 성공적인 인도"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도 과정에서 고객은 차량을 살피고 아주 만족을 표시했으며 향후 협력 가능성까지 내비쳤다"고 덧붙였다.
- 정보 당국은 이 언론발표문이 북한이 지난 15일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을 기념한 군사 퍼레이드에서 선보인 미사일 운반에 사용된 차량을 언급한 것으로 "99% 확신하고 있다"고 한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 그러나 후베이썬장의 외국거래처 관계자는 북한과 어떠한 거래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과거 북한이 아니라 한국과 거래한 적이 있다"면서 "지금은 한국 정부와 어떤 거래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뉴욕의 유엔 외교관들은 일부 유엔 대사들이 이번 판매건을 인지하고 있으며, 후베이썬장이 북한에 탄도미사일프로그램에 이용될 수 있는 기술의 판매를 금지한 유엔결의를 위반했는지를 살피고 있다고 전했다.

#### ● 중국방문 北주민 급증...전년비 40%↑(4/24)

- 중국을 방문하는 북한 주민이 급증하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4일 전했다. 중국 관광정책 담당부처인 국가여유국이 23일 공개한 '1분기 외국인 입국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중국을 방문한 북한 주민은 4만2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만8천600명보다 40.5%나 늘어났음.
- 올해 1분기 방중한 북한 주민 중 공장이나 식당 등에서 일하려고 방문한 사람이 1만9천300명(48%)으로 가장 많았고, 회의 참석이나 비즈니스



- 용무 1만800명(27%), 관광 1천100명 등 순으로 집계됐음.
  - 연령별로는 45~64세가 1만9천100명으로 가장 많고, 25~44세 1만7천200명으로 나타났음.
  - 성별로는 남성이 3만3천200명(83%), 여성은 7천명이었음.
  - 방중에 이용한 교통수단은 선박(1만7천400명), 자동차(9천300명), 비행기(8천200명), 기차(3천900명), 도보(1천400명) 순이었음.
  - 중국 국가여유국이 발표한 이번 자료는 정식 절차를 거쳐 중국을 방문한 북한 주민만 집계한 것으로, 탈북 등 비공식 경로를 통해 중국에 입국한 주민은 포함되지 않았음.
- **김정은 "北-中 전통적 우호관계 강화" 강조(4/24)**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중국과의 전통적 우호관계 강화가 북한의 변치않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고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이 24일 보도했음.
  - 북한에 지국을 둔 통신은 이날 평양발 기사에서 김 제1위원장이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에게 보낸 전문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전문은 후 주석이 최근 김정은이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노동당 제1비서로 추대된 데 대해 축하 전문을 보내온 데 대한 답신이라고 통신은 설명했다.
  - 김정은은 전문에서 양국의 전통적 우호 관계가 두 나라 인민들의 이익을 위한 양측의 공동 노력으로 더욱 발전돼 나갈 것을 확신한다면 중국 인민도 공산당의 영도하에 조화로운 사회주의 사회 건설에서 새로운 큰 성과를 이루길 바란다고 밝혔음.
  - 하루 전 후 주석은 베이징(北京)을 방문한 김영일 북한 노동당 국제비서를 접견한 자리에서 "중국과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며 "아울러 양국은 동북아의 장기적 안보와 공동발전 증진을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음.
- **"北, 중국인 북한 단체관광 재개"(4/27)**
  - 북한이 김일성 주석 생일(4월15일·태양절) 전후로 중단한 중국인의 북한 단체관광을 25일 재개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중국내 여행사를 인용해 27일 전했다.
  - 중국인의 북한 관광은 이달 7일부터 약 2주간 이뤄지지 않았음. 북한은 김 주석 생일 전후로 열린 여러 기념행사에 외국인들을 대거 초청한 데 따른 숙박시설 부족 등으로 중국인의 단체관광을 잠정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 **"中, 작년 5월 북한에 발사대 차량 8대 수출"(4/27)**
  - 북한이 지난 15일 열병식에서 선보인 신형 이동식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발사대 차량은 지난해 중국에서 수입한 것이라고 캐나다에 본부를 둔 중국 전문 민간 군사연구기관 '칸와(漢和) 정보센터'가 26일(현지시간) 밝



- 혔음.
- 교도통신에 따르면 칸와 정보센터는 이날 북한의 신형 미사일 발사대 차량과 관련, 중국기업이 작년 5월 8대를 수출했다고 발표했다. 칸와 정보센터는 그간 중국산일 가능성이 제기된 발사대 차량을 조사한 결과 중국이 수출한 것에 미국제 디젤엔진과 독일제 변속기를 단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 이들 발사대 차량을 제조한 곳은 중국 인민해방군 산하 기업 '후베이싼장항톈완산(湖北三江航天萬山) 특종차량유한공사'이며 주로 중국군의 미사일 발사대 등 군사용 특수차량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음. 이 회사는 2008년부터 북한 측과 교섭해 북한의 주문에 맞춰 특별히 미사일 발사대 차량의 차체를 설계했다고 칸와 정보센터는 지적했다.
  - 칸와 정보센터는 "이런 특수차량은 분명히 민간용이 아니므로 중국 측도 군사용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게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 다만 칸와 정보센터는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이 미완성으로 "실전 능력은 없다"고 평가했음.
  - 앞서 서방의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이 공개한 신형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발사대 차량이 중국이 수출한 특수차량을 토대로 하고 있다고 분석했음. 전문가들은 "미사일 발사대 차량이 중국제로 확인되면 북한에 무기와 관련 물자의 제공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음. 이에 중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어길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으며 발사대 차량의 대북 제공설을 일축한 바 있음.

## 라. 일·북 관계

### ● 日공안위원장 "일본인 납치피해자 전력다해 구출"(4/23)

- 일본인 납치문제를 담당하는 마쓰바라 진(松原仁) 일본 국가공안위원장은 22일 북한에 있는 일본인 납치피해자를 "모든 수단을 써서 한시라도 빨리 구출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천명했음. 서울을 방문 중인 마쓰바라 공안위원장은 이날 탈북자들이 운영하는 대북 단파라디오 '자유북한방송'에서 녹음한 메시지에서도 이같이 다짐하며 일본인 납치피해자에 "결코 희망을 버리지 않고 몸을 소중히 해달라"고 당부했음.
- 또 마쓰바라 위원장은 메시지에서 북한 지도부에 대해 "납치문제의 해결 없이 일-북한 국교정상화는 있을 수 없다"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음. 마쓰바라 위원장은 납치피해자와 가족이 점차 고령화하는 점에서 "만일 관련자 대부분이 사망하면 국교정상화의 기회는 영원히 잃게 될 것"이라며 조기 해결을 촉구했음.
- 이어 마쓰바라 위원장은 납치문제에 구체적인 진전이 있으면 "일본은 다른 나라에 못지않은 인도지원을 할 수 있다"며 북한에 성의를 보이라고 호소했음.
- 아울러 마쓰바라 위원장은 북한 측에 미사일을 다시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실시하지 말라고 요청했음.



- 북한은 2008년 일본과 양자대화에서 일본인 납치피해자 문제를 다시 조사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음.
- 마쓰바라 위원장의 메시지는 한 달 동안 매일 두 차례 방송됨.

● "北, 일본인 납치피해자 강제 이주"〈산케이〉(4/29)

- 북한이 일본인 납치피해자를 강제 이주시키는 등 비밀 유지를 위해 엄중히 관리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29일 보도했음. 이 신문은 일본의 시민단체인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한 전국협의회(구하는 모임)'가 북한의 유력한 당국자로부터 이런 정보를 입수했다고 전했다.
- 이 시민단체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북한은 2007년과 2008년 일본인 피랍자의 정보를 입수하려 시도한 인물을 체포한 뒤 비밀경찰인 국가안전보위부가 피랍자에게 접근하는 사람은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처벌하도록 지시했음. 또 일본인 피랍자를 엄중한 관리하에 두기 위해 강제 이주시킨 것으로 전해졌음.
- 2008년 시점에서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는 10명 미만의 일본인 피랍자를 관리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들 가운데 2명은 북한 이름을 갖고 있었음. 이들 2명은 남성으로 보이지만 나이나 일본명은 확인되지 않았음. 외부와 차단된 장소에서 자료 번역 등에 종사하는 것으로 전해졌음.
- 다른 소식통에 의하면 북한의 공작기관이 30명 이상의 일본인 피랍자를 관리하고 있다는 정보도 있음. 이들은 주거 관리가 쉬운 '초대소'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북한은 2008년 일본과의 실무협약에서 일본인 피랍자의 안부에 대한 재조사를 약속했지만, 이후 진전이 없는 상태임.

마. 러·북 관계

● 러 "北 핵실험 준비 관련 한반도 상황 예의주시"(4/24)

- 러시아는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보도와 관련 한반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러시아 외무부 관계자가 24일(현지시간) 밝혔음.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이 관계자는 "우리는 한반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한반도는 우리의 주변국으로 그곳 상황은 곧바로 러시아 안보 이익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 이 외교관은 "러시아 외무부는 북핵 6자회담 참가국들 모두와 지속적인 실무 접촉을 유지하고 있다"며 "우리의 입장은 상황이 위기 국면으로 전개되는 것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이른 시일 내에 6자 협상 과정을 재개하는 것을 비롯해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협상 국면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앞서 서방 언론매체들은 북한 상황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위한 준비를 끝냈다고 보도했음.





### ● "러시아, 北 핵미사일 개발 노력에 불만"(4/26)

- 러시아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하려는 데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고 드미트리 로고진 러시아 부총리가 24일(현지시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인테르팍스 통신 등에 따르면 정부 내에서 국방분야를 책임지는 로고진 부총리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러시아는 정밀한 대량살상무기 운송수단을 개발하려는 북한의 노력이 달갑지 않다"며 "북한은 자국 안보를 보장할 권리가 있지만 이것이 위협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선 안된다"고 지적했음. 로고진은 앞서 13일 이루어진 북한의 로켓 발사 시도에 대해 이같이 논평했음.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 목적이라고 주장한 '은하-3호' 발사를 사실상 핵무기 운반을 위한 탄도미사일 개발 시도라고 규정한 것임.
- 로고진은 "만일 한 나라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려 시도하면 동시에 그것을 운송하는 수단도 개발할 것"이라며 "대량살상무기는 그것을 적국에 떨어트릴 수단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음.
- 그러면서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운송을 위한 로켓의 사거리와 정밀도를 높이려 시도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비밀이 아니다"며 "러시아는 이에 대해 환상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음. 그는 "대량살상무기가 나름의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러시아는 그러한 무기를 가진 국가들이 늘어나는 것에 절대적으로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 로고진은 "핵클럽 확산, 특히 이웃국가들과 파트너국가들에 대화 상대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지 못하는 국가의 핵개발로 인한 핵클럽 확산은 우리에게 큰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음. 그는 "바로 이 때문에 우리는 북한이 발사한 로켓이 정상궤도를 이탈하면 러시아 요격 미사일에 의해 격추될 것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소개했음.
- 로고진은 '북한의 로켓 발사가 양국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란 질문에 "우리는 이 파트너 국가(북한)에 대해 아무런 환상도 갖고 있지 않다"며 "물론 우리는 북한이 주변국에 우호적인 나라가 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상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음.

## 바. 기 타

### ● 반 총장 "北, 추가도발·핵실험 삼가야"(4/27)

- 인도를 방문 중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27일(현지시간)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소식과 관련, 북한에 자제를 촉구했음. 반 총장은 이날 뉴델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이 이달 중순에 실시한 로켓 발사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북한은 "추가 도발이나 핵실험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음. 반 총장은 이어 북한이 "역내 평화 유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만 한다"고 밝혔음.
- 반 총장의 발언은 북한이 이르면 2주 내에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 나왔음. 한편 3일 일정으로 인도를 방문 중인 반 총장 이날 회견에





앞서 만모한 싱 총리 등 인도 지도자들과 회담을 하고 지역 안보 문제 등을 논의했음.

## 2. 주변국 관련

### 가. 한·미 관계

#### ● <청와대, '美 광우병 대응' 고심>(4/27)

-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과 관련해 정치권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이나 중단 요구가 잇따르면서 '국정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음. 현재로선 별다른 묘수를 내놓지 못한 채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 중인 다른 나라들의 대응과 국내 정국 기류를 지켜보는 '탐색전'을 이어가는 상황임.
- 무엇보다 정권 초기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에 심대한 타격을 줬던 2008년 '광우병 파동' 당시 대규모 촛불 시위에서 받은 심리적 '트라우마(외상)'가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임. 청와대로선 당시 홍보·정무 라인에서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결국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국민 사과를 했던 뼈아픈 실기를 잊지 않고 있음. 이 때문에 청와대 내부에선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놓고 복잡하게 기류가 엇갈리고 있음. 각자 셈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임.
- 청와대는 27일 주요 참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어 미국 광우병 발생에 따른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못 낸 채 일단 주무 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로 대응 창구를 일원화한다는 방침만 세운 것으로 전해졌음.
- 현재 청와대 경제·외교 라인은 검역 중단 요구에 부정적인 의견임. 한·미 간 외교 관계와 무역의 원칙을 엄연히 고려해야 하는 만큼 과학적인 위험성을 입증하지 못한 채 수입규제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우리나라에 수입되지 않는 30개월 이상 젖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는데 어떤 근거로 수입을 규제할 수 있는냐는 논리임.
-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건이 우리보다도 까다롭다는 유럽이나 일본 등에서도 아직 수입 중단이나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점에 주목하고 있음.
- 반면, 여론에 민감한 정무 라인에서는 민심이 심상찮다는 점을 들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분의 전수조사와 함께 검역 중단, 수입제한 조치도 여러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음. 2008년 국무총리 담화문과는 별개로 정부가 낸 신문 광고에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시 수입을 중단한다'는 문구가 있는 만큼 "약속을 어겼다"는 비판을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다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 라인 핵심관계자는 "필요하면 전수 조사를 해야 할 것이고, 선진국들이 검역 중단에 나선다면 우



리도 검역 중단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처럼 내부 의견이 완전히 통일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는 외부에 혼선을 줄 가능성을 우려한 듯 "홍보수석과 대변인을 통해 나온 입장 외에는 모두 사견에 불과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음.

● 한미 "北핵위협 시나리오 공동 연구개발"(4/28)

- 한·미 양국은 최근 북한의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핵위협 시나리오'를 공동 연구·개발하기로 합의했음. 또 양국간 국방 우주협력 합의서 체결과 우주분야 연합연습, 사이버 협의채널 강화 등을 통해 국방 동맹의 범위를 사실상 전방위로 확대하기로 했음.
- 한·미 양국은 27일(현지시간) 미국 펜타곤(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1차 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방협력 방안을 마련했다고 국방부가 밝혔음. 양국 국방당국은 이번 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강행과 3차 핵실험 가능성 등과 관련, 핵위협 시나리오를 공동으로 개발해 올해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했음. TTX는 북한이 핵무기로 남한을 위협하는 위기 상황에 정치·군사적으로 대응하는 연습으로, 지난해 11월 미 전략사령부에서 처음으로 실시됐음.
- 양국은 아울러 핵우산, 탄도미사일 방어능력(MD) 등 핵무기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운용수단을 동원하는 '맞춤식 억제전략' 마련을 위해 고위 정책 결정자들이 참여하는 세미나도 추진하기로 했음. 또 북한의 생물학전 능력 등 비대칭 위협과 관련해 공동평가서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방안도 마련하자는 데 합의했음.
- 이와 함께 양국은 올해 안에 국방 우주협력 합의서를 체결하는 한편 내년에는 미국의 우주교육 과정에 한국군 장교를 입교시키고, 우주분야의 연합연습도 추진하기로 했음.
- 이번 회의에서는 이밖에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전략동맹 2015'의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오는 6월로 예정된 '국방·외교장관 2+2 회의'의 의제와 일정도 협의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 지난해 10월 제4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의 합의로 개설된 이후 처음 개최된 이번 통합국방협의체에는 한국측에서 임관빈 국방정책실장, 미국측에서 제임스 밀러 정책차관 대행이 각각 대표 자격으로 참석했음. 임 실장은 "양국은 북한의 추가 장거리 미사일 발사, 핵실험, 재래식 군사도발 위협에 엄중히 경고하고 동맹의 단호한 의지와 대비태세로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나. 한·중 관계

● KT-NTT, 비상시 韓日 통신위성 공동사용 MOU(4/25)

-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일본 통신업체의 위성을 이용해 재난통신서비스를 하는 방안이 검토됨. KT[030200]는 일본 통신업체인 NTT와 일본 도쿄



의 NTT R&D 센터에서 비상·재해 시 양사의 통신 위성을 공동으로 쓸 수 있는지 시험하는 상호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 이 협약에 따라 KT와 NTT는 지진 및 전쟁과 같은 비상·재해 상황에서 상대 회사의 통신위성을 활용해 자국에 재난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현장 시험을 함. 위성 도달범위(커버리지)가 겹치는 부분을 이용해 긴급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위성 대역폭을 사용할 수 있는지 미리 알아보는 것임.
- KT와 NTT는 상대국 위성 사용 면허 취득에 협력하고 올해 안에 교차 사용에 필요한 시험을 마칠 예정임. 흥원기 종합기술원장은 "민간 사업자 간의 단순 협력이 아닌 범국가적인 인권 보호라는 차원에서 한·일 양국에 모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 日 재무상 "한국 국채 매입 검토"(종합)(4/27)

- 일본 정부가 한국이 발행한 원화 국채 매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의 아즈미 준(安住淳) 재무상은 27일 오전 각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한국 국채 매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 달 3일 필리핀에서 열리는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한국 측과 국채 매입을 협의할 가능성을 시사했음.
- 한편,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외화보유액을 활용해 한국 국채를 매입하겠다는 방침을 한국 정부에 전달해 승낙을 받았다고 전했다. 한국은 이미 외화보유액으로 일본 국채를 매입해 보유하고 있지만, 일본정부는 처음으로 한국 국채 매입을 추진하고 있음.
- 일본 정부가 한국 국채를 사들이려는 것은 금융분야의 협력을 통해 지역의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임. 작년 10월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통화 위기 시 외화를 융통할 수 있는 통화 스와프 규모를 130억 달러에서 700억 달러로 확충한 바 있음.
- 일본은 중국과도 지난달 위안화 국채를 최대 103억 달러어치 매입하기로 합의했음.
- 한국과 중국, 일본은 아세안(ASEAN)과 협력해 역내 자금지원 체계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체제'의 통화 스와프 규모를 1천200억 달러에서 2천400억 달러로 배증하는 방안도 조율 중임.

#### 다. 미·중 관계

##### ● <美에 우호적인 中..새로운 협력시대 도래?>(4/28)

- 최근 중국이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을 둘러싼 국제안보 문제에서 미국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하지만 이는 때마침 일부 중요한 사안에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데 따른 것일 뿐 양국간에 새로운 화해의 시대를 알리는 전조로 보기에 이르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음.
- 중국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둬들인 경고에도 로켓 발사를 강행하자 이를



- 강하게 규탄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성명에 순순히 찬성했음. 안보리의 시리아 결의안에 두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휴전 감시단을 파견키로 하는 결의안에도 제동을 걸지 않았음. 앞서 2월에는 이란산 원유 수입을 대폭 줄였고 이란이 1년만에 핵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는데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음.
- 미국과의 무역전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환율 문제에서도 전혀 없는 융통성을 보이고 있다는 게 미국의 설명임. 이는 미국이 호주에 2천500명 규모의 해병대를 주둔시키고 필리핀과의 합동 군사훈련을 확대키로 한데 대해 중국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됨.
  - 중국이 이란의 원유 수입을 줄인 것이 미국의 제재를 인정한 것인지, 아니면 일각의 지적처럼 원유 수입가를 낮추기 위한 전략인지 저의는 확실하지 않음.
  - 또 중국과의 건설적인 관계에 공을 들여온 미국으로서는 중국의 저의보다는 양국 관계가 전반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게 더욱 중요하다는 입장임. 제프리 베이더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두 나라의 관계는 국익이 일치하느냐 상충하느냐에 따라 부침을 반복해 왔다"며 "하지만 최근의 신호는 긍정적인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음.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도 지난달 해군사관학교 연설에서 "오늘의 지정학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며 "중국과 미국의 번영은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며 강조했다.
  -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양국 관계에 대한 선부른 낙관론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음. 미국 브루킹스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양국 간에는 뿌리 깊은 불신이 존재한다며 "특히 중국은 양국 관계를 '장기적인 제로섬 게임'으로 보고 있다"며 클린턴 장관과는 다른 진단을 내렸음.
  - 미 당국자들도 양국의 협력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데 대해 이의를 달지 않음. 실제로 중국은 북한을 비판하는 안보리 의장성명에는 동참하면서도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이 최근 베이징(北京)을 방문한 김영일 노동당 국제비서를 친히 접견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또 다른 중국의 고위 관리는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보석'에 비유하기도 했음.
  - 미국은 북한의 군사 퍼레이드에서 공개된 미사일 발사대가 중국산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중국이 고의로 안보리 결의를 어기지는 않았더라도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을 주목함.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국장을 지낸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중국은 어떤 업체가 북한과의 거래에 개입했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중단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음.
  - 이란에 대한 중국의 계산법은 북한보다는 좀 더 복잡할 수 있음. 그럼에도 중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줄인 것이 미국을 도우려는 것인지, 아니면 수입 가격을 낮추기 위한 것인지는 올 여름에는 보다 명확해질 것으





로 보임. 한국과 일본 등 미국의 우방들이 제재에 동참함에 따라 현재 이란은 원유를 걸프만에 있는 유조선에 비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름이 되면 이들 유조선이 포화상태에 이르기 때문임.

- 미국은 중국이 그때부터 싼값에 이란산 원유 수입을 재개할 경우 중국도 제재 대상에 포함할지를 그 이전에 결정해야 하는 힘든 과제를 안고 있다고 타임스는 전했다.

#### ● "미, 대만에 신형 F-16 판매 검토할 것" <美관리>(4/28)

- 미국 행정부는 대만에 신형 F-16 전투기 판매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백악관 관리가 밝혔다. 백악관 로버트 내보즈 입법담당 국장은 27일(현지 시간) 존 코닌(공화·텍사스) 상원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대만이 점차 더 큰 군사적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전투기 판매는 진지한 검토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 같은 입장은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과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다음주 미중 고위급 회담을 위해 중국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양국간 마찰의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임.
- 록히드 마틴사 제작의 F-16 C/D기 판매가 확정되면 대만의 노후 전투기인 F-5기 대체 및 F-16 A/B기 개량 계획을 보완하게 될 전망이다. 대만에 대한 미국의 고성능 무기 판매는 미-중 외교 마찰의 불씨가 돼 왔으며 대만은 미국 정부가 자국에 대한 F-16 C/D 판매를 허용하길 바라고 있음.

#### 라. 미·일 관계

##### ● 美해병·자위대, 필리핀 기지 공동사용 검토(4/24)

- 美 해병대와 일본의 자위대가 필리핀의 기지를 공동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24일 보도했음. 이 신문에 의하면 미 해병대와 일본의 자위대는 주일 미군 재편 계획의 하나로 필리핀의 훈련 시설을 공동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미국과 일본군의 공동 훈련 후보지로는 남중국해인 팔라완섬에 있는 필리핀 해군 및 공군 기지가 유력하며, 루손섬도 거명되고 있음. 이는 미국과 일본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복수의 기지를 공동 사용함으로써 해양력을 키우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임. 미국과 일본은 이미 북 마리아나제도의 미국령 테니안섬 미군 기지를 자위대와 공동 사용하기로 합의했음.
- 미국 정부는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해병 일부를 하와이와 괌, 호주의 다윈 등으로 순회배치할 방침이며, 거점의 하나로 팔라완섬과 루손섬도 검토하고 있음.
- 미국과 일본의 필리핀 기지 공동 사용이 실현될 경우 미국과 일본의 공동 훈련에 필리핀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됨. 남중국해 일대는 중국과 필리핀 등이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곳임.





### ● 美 의원들 "주일미군 재배치, 의회 승인 필요"(4/25)

-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유력 의원들은 오키나와 미군 재배치 문제와 관련한 미일 양국합의가 임박한 가운데 24일(현지시간) 우려를 표명하면서 의회 승인을 요구했음. 칼 레빈 위원장, 존 매케인 의원, 짐 웹 의원은 이날 리언 페네타 국방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어떠한 합의도 의회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들 유력 의원들은 "오키나와 미군 문제와 관련한 양국 관계 악화 및 일본 국내의 정치 기상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은 중요한 문제에 바른 결정을 해야 한다. 건전한 전략적 판단과 지속 가능한 계획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의원들은 이어 "양국 합의에서 충분히 해결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갖고 있다"고 밝히고 구체적으로 이전 비용, 병력 운용, 병력 재배치에 따른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전략 등을 거론했음.
- 미일 양국은 지난 2월 주일 미군 5만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주둔 중인 오키나와에서 미군 8천명을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한 바 있음.
- 관측통들은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다음주 미국을 방문하는 만큼 양국 간의 최대현안으로 꼽히는 미군 재배치와 관련한 합의내용이 조만간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 美日 정상, 軍 '동적방위' 강화 합의 예정(4/26)

- 미국과 일본이 이달 말 정상회담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훈련과 경제활동에서 양국 군의 공조를 강화하는 '동적방위(動的防衛)'의 강화를 공동성명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6일 보도했음. 이 신문에 의하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오는 30일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열.
- 양국 정상은 회담 후 발표될 공동성명에 미군과 자위대의 경계감시 활동과 공동훈련, 시설의 공동 사용 등 공조를 강화하는 '동적인 미일 방위 협력'을 포함할 예정임. 이는 해양진출을 활발히 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임. 양국의 경계감시활동 강화는 중국의 해양활동이 두드러진 난세이(南西)제도 해역을 상정하고 있음.
- 공동훈련과 시설의 공동 사용은 미국령인 북마리아나의 테니안 기지로 결정됐음. 일본은 이곳의 훈련장 건설 비용을 일부 부담하고 자위대를 파견할 방침임. 일본 정부가 외국의 군사 훈련장 정비에 예산을 부담하는 것은 처음임. 일본은 '동적 방위력' 강화를 지난 2010년 책정한 새로운 방위계획 대강에 처음으로 명기한 바 있음.
- 한편,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양국은 최근까지 진행된 주일 미군 재편 계획 수정 협의를 통해 오키나와(沖縄) 주둔 미 해병대 1만9천명 가운데 9천명을 해외로 이전하기로 합의했음. 팜으로 약 5천명이 이전하고, 나머지는 하와이와 호주 등으로 분산 배치됨.



### ● 오키나와 주둔 美 해병 9천명 괌 등 해외이전(4/27)

- 미국과 일본이 오키나와(沖繩) 주둔 미 해병 가운데 9천명을 해외로 이전하기로 했음. 또 미국은 오키나와 중남부의 미군 5개 시설 및 구역을 3단계로 나눠 일본에 반환하기로 했음. 미국과 일본은 이런 내용의 주일 미군 재편계획 수정에 합의하고 이를 27일 공동문서로 발표했다.
- 이에 의하면 양국은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 1만9천명 가운데 9천명을 괌과 하와이, 호주 등 국외로 분산 이전하기로 했음. 미 해병대의 이전에 따른 일본 측의 부담은 지난 2006년의 기존 합의(28억 달러)를 유지하되,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실제 규모는 31억 달러 정도로 하기로 했음.
- 후텐마(普天間) 기지 이전에 대해서는 같은 오키나와 내 나고(名護)시 헤노코(邊野古)로 옮기기로 한 기존 합의를 고수하되 '정치적 실현 가능성' 등의 조건을 붙여 다른 곳으로 이전을 검토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음.
- 이와 관련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외무상은 기자회견에서 "후텐마 기지가 고정화해서는 절대 안 된다"면서 "향후 헤노코 외의 이전에 대한 검토를 부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음. 하지만, 다나카 나오키(田中直紀) 방위상은 "헤노코로의 이전 안은 유일하고 유효한 해결책이다"면서 "그 외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은 일절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아 불가능하다"고 못박아 겐바 외무상과 견해차를 보였음.
- 양국은 후텐마 기지를 옮길 수 있는 대체 시설이 완전히 건설될 때까지 후텐마 기지의 보수와 유지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음. 오키나와의 반발로 헤노코로의 후텐마 이전은 현재 상태에서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후텐마 기지의 사용 장기화 또는 고정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 미국은 오키나와 본섬의 중남부에 있는 5개 미군 시설 및 구역에 대해서는 13개소로 세분화해 3단계로 일본에 반환하기로 했음.

### ● "美日, 정상회담서 中 겨냥 '동적방위협력' 합의"(4/29)

- 미국과 일본이 30일(일본시각 5월 1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중국을 겨냥한 '동적방위(動的防衛)협력'에 합의할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음. 29일 이 통신에 의하면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과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30일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공동성명을 발표함.
-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에 미군과 자위대가 경계감시 활동에서 공조를 강화하는 동적방위협력의 추진을 명기할 예정임. 이는 해양진출을 활발히 하는 중국을 겨냥해 오키나와와 난세이(南西)제도를 중심으로 양국 군의 기동성과 즉시 대응력을 향상하기 위한 것임.
- 동적방위협력은 지난 27일 양국이 공동 발표한 주일미군 재편 수정계획의 공동문서에서도 '억지력 강화'에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음. 구체적으로는 미군과 자위대가 괌, 북마리아나제도의 테니안섬 등에서 공동훈련과 시설의 공동 이용을 추진함으로써 경계감시와 정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음.



- 두 나라 정상은 미일 동맹의 심화를 비롯해 안전보장, 경제협력을 둘러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질서 구축, 우주와 사이버 공간에서의 협력 등도 논의함.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핵실험 저지를 위한 긴밀한 공조도 재확인할 방침임. 일본 총리가 미국 대통령과 워싱턴에서 공식 회담하는 것은 일본에서 2009년 9월 민주당 정권이 출범한 이후 처음임.

#### 마. 미·러 관계

##### ● 〈'백학' 가수 비자 문제 美-러 외교분쟁으로 비화〉(4/27)

- 러시아의 원로 가수 이오시프 카브존에 대한 미국의 비자 발급 거부 조치가 양국 사이의 외교 분쟁으로 비화할 조짐임. 한국의 인기 드라마 '모래시계'의 주제곡 '백학'을 부른 가수로 유명한 카브존에게 미국 당국이 '범죄 조직과의 연관성'을 이유로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한 데 대해 러시아 외무부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때문임.
- 러시아 외무부는 26일(현지시간) 알렉산드르 루카세비치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미국이 유명한 러시아 가수이자 하원 의원인 카브존에게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는 정보를 실망과 의혹을 갖고 받아들인다"며 "그 결과 (2차대전) 전승기념일에 맞춘 명성 높은 가수의 미국 공연이 무산되게 됐다"고 지적했음. 외무부는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미국이 취한 조치에 대한 합리적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카브존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는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꼬집었음.
- 외무부는 이어 "카브존의 순회 공연을 조직한 미국 측 기획사가 비자 발급 거부에 항의하기 위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식이 승리를 거두길 바란다"고 밝혔음.
- 모스크바 주재 미국 대사관은 하루 전 카브존이 신청한 미국 방문 비자 발급을 거부했음. 올해 9월로 75세를 맞는 카브존은 5~6월 두 달 동안 미국 뉴욕과 시카고, 보스턴 등을 돌며 순회 고별 공연을 할 예정이었음. 하지만 미국의 비자 발급 거부로 공연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음.
- 카브존은 지난 1994년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공연을 했음. 하지만 그 1년 뒤 미국은 카브존의 복수 비자를 취소했음. 그가 러시아 조직범죄 단과 연관돼 있다는 이유에서였음. 카브존은 이후 여러 차례 이같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미국은 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재개하지 않고 있음.
- 전장에서 동료 전우를 잃은 전사의 슬픔과 애수를 노래한 백학(러시아 명 '벨리 주라블')은 원래 러시아 남부 카프카스 지역 체첸 자치공화국의 민요였으나 카브존이 리메이크해 부르면서 널리 알려졌음.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SBS의 인기 드라마 '모래시계'의 타이틀 곡으로 삽입되면서 유명해졌음.



## 바. 중·일 관계

### ● 日 도쿄도, 센카쿠 매입 기부금 모집(4/28)

- 일본의 도쿄도가 중국과 영토 갈등을 빚는 센카쿠(尖閣 : 중국명 다오위 다오)제도를 사들이기 위해 일반 국민으로부터도 기부금을 모집하기로 했음. 28일 현지 언론에 의하면 도쿄도의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慎太郎) 지사는 27일 센카쿠 매입 문제와 관련 "센카쿠제도 기부금 계좌를 은행에 개설했다"고 밝혔음. 이미 센카쿠 매입 기부금은 도쿄도청에 37건, 수십만 엔이 접수됐음. 도쿄도는 모금을 통해 센카쿠 매입을 국민 이벤트로 키울 것으로 보임.
- 도쿄도는 센카쿠 매입에 앞서 현장 조사를 위해 정부에 센카쿠 상륙 허가를 요구할 방침임. 이시하라 지사는 정부가 센카쿠 상륙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경우 관철될 때까지 요구하겠다고 밝혔음.
-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실효지배하는 센카쿠제도를 '평온하고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일반인이나 기관, 단체에 상륙 허가를 내주지 않았음.

### ● 日, 베트남 등 中과 영토분쟁 3국에 경비정 제공(4/29)

- 일본 정부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토분쟁을 빚고 있는 베트남 등 3개국에 경비정을 제공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산케이신문이 29일 보도했음. 이 신문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베트남과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토 갈등을 빚고 있는 3개국에 공적개발원조(ODA) 방식으로 경비정을 제공해 해양안보 기능을 높이도록 지원하기로 했음.
- 일본은 필리핀에는 경비정과 통신시스템, 말레이시아에는 야간에 시계를 확보할 수 있는 장비가 탑재된 경비정을 제공하기로 했음. 일본은 필리핀의 경우 다음 달 중순 이후 경비정 제공의 전단계로 국제협력기구(JICA) 조사팀을 파견할 예정임.
-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작년 7월 필리핀에 경비정 1척을 제공한 외에 해병대의 주둔을 검토하고 있음. 또 싱가포르, 베트남과도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등 일본과 함께 중국에 대한 억지력에 힘을 쏟고 있음.
- 미국과 일본은 지난 27일 발표한 '주일 미군 재편의 수정계획에 대한 공동문서'에서 아시아태평양 연안국에 대한 ODA의 전략적 활용을 명기했음. 일본의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외무상은 27일 기자회견에서 "미국 군사 외교 전략의 보완적 역할을 일본이 다할 수 있다면 상당한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음.

## 사. 중·러 관계

### ● "중-러, 북핵문제 상대방 입장 전적 동의"(4/29)

-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핵 문제와 시리아 사태에 대한 공조 입장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청귀핑(程國平)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28일 밝혔음.





리커창(李克強) 부총리를 수행하고 러시아를 방문 중인 청 부부장은 기자 회견에서 "양국이 두 문제와 관련한 상대방의 입장에 100% 전적으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 러시아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 관련 의혹을 받아온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한 데 대해 비난했음. 양측은 그러나 관련 당사국들의 자제를 촉구했음. 시리아 사태와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는 바샤르 알 아시드 시리아 대통령을 규탄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그를 보호했음.

## 아. 기. 타

### ● 美 "한·일, '동해명기' 합의해야"(4/24)

- 미국 정부는 23일(현지시간) 한국의 '동해-일본해 명기' 주장과 관련, "모든 공해(公海)에 대해 단일명칭을 쓰는 것이 오랜 정책"이라고 확인했음. 익명을 요구한 국무부 당국자는 이날 제18회 국제수로기구(IHO) 총회에서 논의될 동해 표기 문제에 대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음.
- 이 당국자는 특히 "미 정부는 지명위원회(BGN)에 의해 결정된 명칭을 사용한다"면서 "해당 해역에 대한 BGN의 기준 명칭(standard name)은 일본해(Sea of Japan)"라고 밝혔음. 그는 다만 "한국은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한국과 일본이 이 문제에 대해 서로 동의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서 IHO에 내놓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항해안전 유지 차원에서 해상 표기도 지명과 같이 단일명칭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한국 입장을 반영해 직접적인 거부보다는 한·일 양국의 합의를 촉구한 것으로 해석됨.
- IHO는 이날 모나코에서 개막한 이번 총회에서 1953년 3판 발행 이후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국제 표준 해도집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 개정을 위해 동해 표기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릴 계획임. 한국 대표단은 S23 신판 개정을 통해 동해(East Sea)를 일본해(Sea of Japan)와 병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러시아軍, 북한·이란 핵 위협 첫 공식 인정(4/24)

- 러시아군이 24일(현지시간) 북한과 이란의 핵위협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음.
-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니콜라이 마카로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참모총장)은 이날 현지 뉴스전문 TV채널 '러시아 투데이(RT)'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여러 나라의 핵전력 개발을 주의 깊게 추적해 오고 있다"며 "우리가 미국과 함께 실시한 분석은 그러한(이란과 북한의) 핵 위협이 존재함을 확인해줬다"고 밝혔음. 그는 "이 때문에 우리가 (미국이) 미사일 방어(MD)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동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는 이란과 북한 등 '불량국가'들의 핵 위협을 이유로 유럽에 MD 시스템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 지금까지 러시아 국방부는 나토의 유럽 MD에 반대하며 이란과 북한이 핵무기와 그것을 운반할 수단을 개발하기 위한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들 국가들로부터 오는 유럽이나 러시아에 대한 핵위협은 없다고 주장해왔음.
- 마카로프는 "총참모부는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지 않는 많은 나라들이 실제로 핵무기를 갖고 있음을 알고 있다"며 "만일 이 핵무기가 극단주의자들의 손에 들어가면 이는 국제 안보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음. 그는 그러면서 러시아는 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 마카로프 총장의 이날 발언은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위한 준비를 완전히 마쳤다는 외신 보도가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나왔음. 이와 관련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북한이 2006년 첫 핵실험 이후 이미 핵무기 보유국이 됐다고 전했다.

#### ● 필리핀-美, 남중국해 섬에서 합동군사 훈련(4/25)

- 필리핀과 미국 병사들이 24일 필리핀과 중국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해역에서 멀지 않은 남중국해 섬의 한 해변에서 합동군사 훈련을 실시했음. 양국 군인들은 남중국해가 보이는 팔라완 섬의 해변에서 모의 공격 훈련을 했음.
- 필리핀 해병대의 로멜 아브라우 중령은 필리핀 장병 100여명이 동원된 훈련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섬을 장악한 무장테러 조직을 공격하여 인질을 구출하고 적을 무력화한다는 시나리오에 따라 훈련이 진행됐다"고 말했음. 그는 "이번 훈련은 오래 전에 계획된 것으로 특정세력 혹은 특정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합동 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번에 양국 합동군사 훈련이 실시된 지역은 필리핀의 루손 섬에서 230km쯤 떨어진 곳으로, 중국 영토 가운데 가장 가까운 하이난 주는 북서쪽으로 1천200km쯤 떨어져 있음.
- 필리핀과 미국은 지난 1951년 체결된 상호방위 조약에 따라 어느 한쪽이 외침을 받거나 전쟁이 발생하면 지원을 하게돼 있음.

#### ● 美, 나토 현대화·동맹강화 추진(4/27)

- 미국은 다음달 시카고에서 열리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담에서 나토 현대화와 동맹강화를 추진하고 아프가니스탄 철군 계획의 세부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백악관 관리들이 26일 말했음.
-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엘리자베스 셔우드-랜들 유럽국장은 "나토 동맹이 배치 태세를 강화하고 적응 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발전 계획을 세우고있다"고 밝혔다. 셔우드-랜들국장은 나토가 군사 예산 제약 받는 시대에 비용의 낭비 없이 전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스마트 방위"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셔우드-랜들국장은 특히 발트해 연안 나토 회원국들이 나토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고있다고 밝히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대규모 전력계획의 일환으로 공중 방위에 대한 "실질적 선언"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벤 로즈 NSC부보좌관은 미국이 러시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사일방위체제에 대한 진전을 이번 회의에서 기대하고있다고 덧붙였다.

#### ● 日 '아세안+6개국 FTA' 협상 참여(종합)(4/28)

- 일본이 동남아국가연합(ASEAN)이 주도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인 '아시아 광역 자유무역협정' 협상에 참여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28일 도쿄에서 열린 아세안 10개국 경제장관 회의에서 아시아 광역 FTA에 참여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경제산업상은 "연내 교섭 개시를 목표로 아세안 10개국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 '아시아 광역 FTA'(아세안+6개국 FTA)는 아세안 10개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한국과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6개국에 참여를 요청했다. 아세안이 참여를 요청하고 있는 6개국 가운데 교섭 참가를 표명한 것은 일본이 처음임. 아세안은 다음 달 '아세안+6개국' 정부 고위당국자 회의, 8월에 장관급 회의를 열어 FTA 협상 준비를 계속하고 11월 열리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FTA 협상에 대한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일본은 아세안과의 무역 규모가 앞으로 10년간 2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FTA를 통한 시장 선점을 노리고 있음. 원칙적으로 관세의 전면 철폐를 주창하는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과 달리 관세 철폐의 예외가 상당 부분 인정돼 농업 부문을 지켜야 하는 일본으로서는 참가가 용이함.
- 일본은 현재 TPPA 참여를 위해 미국 등 9개국과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미국이 자동차와 보험, 쇠고기 분야에서 양보를 요구하는 등 3개국이 일본에 협상 참여의 전제조건 해결을 요구하고 있음.
- 따라서 일본은 중국이 참여할 '아세안+6개국' FTA 협상에 참가함으로써 미국을 자극해 TPPA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 하고 있음.

#### ● 유엔, 中日 대륙붕 마찰 오키노토리 '섬' 인정(4/28)

- 유엔이 남태평양에서 중국과 일본이 대륙붕 마찰을 빚고 있고 오키노토리시마(沖ノ鳥島)를 암초가 아닌 '섬'으로 인정했다고 일본 언론이 28일 보도했다.
-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에 의하면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는 주변 4개 해역에 대한 일본의 대륙붕 확장 요구에 대해 국토면적의 약 82%에 해당하는 31만km<sup>2</sup>를 인정했다.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는 특히 오키노토리시마를 섬으로 보고 이의 북방 해역 17만km<sup>2</sup>를 일본의 대륙붕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오키노토리시마 남방 해역 25km<sup>2</sup>에 대해서는 중국의 반발을 고려해 결론을 유보했다.
- 대륙붕으로 인정받은 해역에 대해서는 배타적경제수역(EEZ: 해안으로



부터 200해리) 밖이라 해도 해저자원의 개발권을 주장할 수 있음. 따라서 일본은 유엔으로부터 인정받은 대륙붕에 대한 해저 조사와 개발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됨. 일본은 2008년 11월 오키노토리시마 해역을 비롯한 주변 7개 해역의 약 74만km<sup>2</sup>를 대륙붕으로 인정해 달라고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신청했었음.

- 하지만, 중국은 의견서에서 오키노토리시마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경제활동도 이뤄지지 않는 바위로 대륙붕으로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음. 한국도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음.
- 오키노토리시마는 일본 최남단 해상에 위치한 산호초임. 중국은 이를 일본의 해역으로는 인정하면서도 영토인 '섬'이 아닌 산호초이기 때문에 역내 개발권이 부여되는 대륙붕이나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UNHCR 대표 "中 탈북자 복송 중단 안했다"(4/29)

- 중국이 최근 탈북자 강제복송을 중단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해 유엔 난민최고대표사무실(UNHCR)의 안토니오 구테레스 최고대표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9일 보도했음. RFA는 미국 의회 소식통을 인용, 구테레스 최고대표가 지난 27일 오전 미 의회 관계자들에게 중국내 탈북자 문제에 관해 설명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18일 중국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광명성 3호 위성' 발사와 관련해 북한으로부터 사전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탈북자 강제복송을 중단했다고 보도한 바 있음.
- 구테레스 최고대표는 미 의회 관계자들에게 탈북자 강제복송이 최대 현안이지만 탈북여성을 상대로 한 인신매매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고 RFA는 전했다.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